U-러닝 미래형 LCD 전자칠판

전자칠판
태블릿 노트북
AP
www.tyunc.com 031_484_3858

교육연합신문

능력있고 소통되는 믿을만한 변호사
법무법인 우 신
민사/형사/가사 무료법률상담 환영
사무실 : 032-861-2222
휴대전화 : 010-4380-5607

2016년 12월 21일(수) 제 274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위기의 순간에 빛난 그들 2면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린다.
2016년 11월 29일 오전 11시 50분 인천 연수구 선학중학교(교장 박주용) 보건실. 자유학기제 관련된 30대 초반 남성인 이모 강사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과 호흡이 멈춘 응급상황. 그 때 옆에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미래 학교'를 꿈꾸는 진해남중 8~9면

경남 김해 관동중학교는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차 진로체험행사를 실시했다.
12월 6일에는 장유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연극 '가시고기'를 관람하였고 7일에는 디자이너, 드론, 모델, 스튜어디스, 항공기 조종사, 경찰관, 약사, 바리스타, 뮤지컬…

구례교육지원청 교육 프로그램 16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시준)에서는 스마트기기를 보편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인 세계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전력투구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학생 학교적응 체계적으로 돕는다

교육부,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교육부는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학년부터 적용될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부적응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운영(2012.6~2013.2)을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4.1)으로 학교 장의 의무로써 위기학생에게 숙려기회를 부여하도록 시행돼 왔다.
또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학교 장의 숙려제 시행의무, 숙려기간의 출석인정, 교육감의 운영기준 수립권한에 대하여 법률로써 명시하게 됐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정기간 동안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후에는 시·도교육청 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이한 학업중단 숙려제는 2013년 시범운영 이후로 참여학생 수 및 참여학생의 학업지속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43,854명 중 37,935명(86.5%)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교육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설문대상 교원(2,459명)의 52%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제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현장에서 숙려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숙려제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어 대상학생 판단기준, 숙려기간 등 일부 기준이 상이해 성과에 한계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2015년 숙려제 참여학생의 학업지속률이 최대 93%에서 최소 56%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여 운영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숙려 목적 외의 제도악용이 우려되고, 숙려기간 중 학생의 소재파악 및 안전관리에 대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마련한 시·도교육청 공통 운영기준을 통해 지역별 숙려제 운영성과를 고르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숙려제 대상학생 판단기준에 무단결석 학생 및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신설하여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에 개입하도록 강화하고, 기존에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로 진행된 숙려 기간이 학생 개인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1주~최대7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학교에서 숙려제 참여학생의 소재·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학생·학부모 면담절차를 강화하였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금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숙려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기틀을 다지고,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구 기자 khg@

싱글들의 크리스마스 대작전

전남도교육청, 미혼 남녀 교직원 만남의 장 마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12월 17일 전남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미혼 남녀 직원 88명을 대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3일 실시한 '제1회 미혼 남녀 교직원 만남의 장' 행사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재차 만남의 장 행사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전격 시행됐다. 이벤트 전문업체 레미행 이창인 국장이 진행한 공동 레크레이션과 대화의 시간, 내 마음 전달하기, 행운권 추첨 등 스트레스 해소와 커플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꾸며졌다.
김천옥 기획관은 "미혼 남녀 직원이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며 "평소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직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만혈 기자 jmc@

내년 산업기술 R&D 3조 3382억원 지원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총 3조 3382억원 규모의 예산을 연구개발(R&D) 분야에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해 525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824억원으로 57.1% 증액했다.
로봇산업 기술개발에도 884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722억원보다 22.5% 늘어났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 분야 역시 지난해보다 78.4% 늘어난 409억원을 할당했다.
에너지수요관리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해보다 7.0% 증액된 1813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서도 39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4.8% 증액된 규모. 에너지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11억원 늘어난 220억원이 투입된다.
엔지니어링과 지식서비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각각 203억원과 34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68.8%, 3.5% 늘어난 규모다.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난해보다 3.3% 증액된 43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은 올해 2746억원에서 내년에는 2378억원으로 13.4% 줄였다. 지역산업 거점 지원 사업도 2930억원에서 1987억원으로 32.2% 감축했다. 산업기술 기반 구축 관련 3개 사업은 2017년 조기 일몰한다. 한정된 규모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2017년 산업기술 R&D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이다.
연구자 연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해 체계화한다.
평가자의 연구 분야와 내용, 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존 무작위 추천 제도를 빅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과제 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 위촉해 과제를 전담 관리하고 지원토록 한다.
외부 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B&D(Buy & Development) 방식을 도입한다. 업종간, 기술간 융복합 대형과제도 확대하고 경쟁형 R&D 방식을 확대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한다.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과 과제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동시 수행 과제 총량제 산정 기준을 수행기관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한다.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 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해 적용하고, 연구원 최소 참여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주관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참여기간 간 사업화 연결 고리 강화를 위해 올해 15개 사업에 시범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내년에는 30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중 서울과 대전에서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에서는 1월 18~20일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대전에서는 1월 23~25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각각 열린다.

학생들이 개발한 제품 기업과 통하다

대구한의대 학생들 개발 제품, 화장품 기업에 기술 이전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PRIME사업단은 학생들이 학부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제품 제작을 실습하는 캡스톤 디자인 과정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바이오산업융합학부 이창언 교수의 지도하에 이혜민 학생(4학년)과 김미소 대학원생이 개발한 '알래스카 빙하수 및 버섯추출물을 이용한 나노리포좀 에센스' 제품을 지난 15일 ㈜알래스카 드림과 기술이전 체결식 가졌다.
이 기술은 정제수 대신 알래스카 빙하수를 사용하고 버섯추출물의 수용 유용성 성분을 최대한 추출하도록 한 리포좀화 기술을 응용하여 안티에이징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로 ㈜알래스카 드림의 미국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알래스카 드림 Charlie Bales 대표는 "미국시장은 글로벌 화장품기업들의 격전지로 기술력이 없으면 진출하기 힘든 시장으로, 이번 기술이전으로 미국시장 진출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 PRIME사업단은 지난 7일과 9일에도 ㈜코스메랩과 박가분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을 갖는 등 교육과정 혁신과 화장품, 바이오, 제약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의 성과물로 PRIME사업 원년부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밤이 아름다운 거리

부산 서구 '안심불빛존' 설치

어둡던 골목길이 아름다운 조명으로 화사하게 변신해 눈길을 끄는 곳이 있다. 부산 서구 동대신3동 주민센터는 지난 2014년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됐던 '시담길'에 조명을 설치해 어둡던 골목길을 환하게 밝혔다. '시담길'은 동 주민센터 주변 골목길로 '사색에 젖어보는 시(詩) 담길'이란 이름으로 '생각해볼 만한 시가 있는 담장길'이란 뜻이다.
그동안 구덕로 340번길 일대 200m 골목길은 각종 회초와 나무로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했고 또한 10여 편 이상의 시와 명언으로 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감있는 거리로 조성됐지만, 밤이 되면 어두운 구간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내년 대학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 1.5% 이하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올해(2016학년도)보다 0.2%p 낮아진 1.5% 이하이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에 발표한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의 협조도 독려할 예정이다.